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

## 목 차

---

### ■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국내 서비스업의 중요도 .....	1
2. 국내 서비스업 현황 .....	2
3. 국내 서비스 업종별 수급 현황 .....	3
4. 시사점 .....	15
【첨부】 서비스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판단 결과 .....	17

Executive Summary

<요약>

■ 국내 서비스업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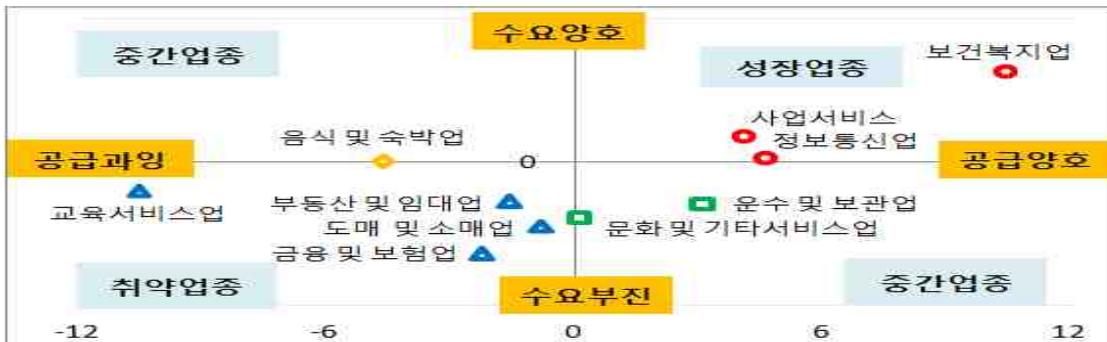
국내 서비스업이 GDP 및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국내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9.4%이고,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9.2%다. 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지수는 2010년 100에서 2014년 98.6로 하락했다. 또한 국내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60% 내외)은 G7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 70% 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서비스업 개별 업종의 수요·공급 현황 점검을 통해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서비스업 업종별 현황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내부 업종별로는 생산성 및 고용 비중의 특징에서 차이가 크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높은 생산성과 낮은 고용 비중을 보인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정보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문화·기타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 및 유통 서비스가 낮은 생산성과 높은 고용 비중의 특성을 보인 반면, 생산자 서비스는 높은 생산성과 낮은 고용 비중의 특성을 보인다.

■ 국내 서비스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 및 평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생산자, 소비자, 유통 서비스업을 수요·공급 현황 및 종합평가를 통해 성장업종, 취약업종, 중간업종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성장업종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지표가 모두 양호한 업종이다.

**(정보통신업)** 고용과 투자(공급능력)가 증가세이고 영업이익률(수익성)도 아직 높은 수준이다. 수요 측면에서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가 2012년 0.9p에서 2014년 0.2p로 호조 상황(플러스)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서비스)**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1인당 부가가치도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크다. 수요를 나타내는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가 2014년 0.8p로 진입하여 수요 호조를 나타낸다.

**(보건복지업)** 고용이 확충되었으나 임금과 1인당 부가가치가 다소 하락한 것을 고려할 때 공급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01년 1.5p에서 2014년 1.2p로 수요 호조 상황이다.

## ② 취약업종

공급은 과잉 상태이고 수요는 부진 상황에 있는 업종이다.

**(금융보험업)** 실질 GDP 성장률(성장성)과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고용과 투자(공급 능력) 등 공급부문이 하락했다. 수요부문에서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3년 이후 마이너스로 수요 부족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실질 GDP 성장률, 고용과 투자, 영업이익률 등 공급측 요인이 하락했다. 수요를 나타내는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1.0p에서 2014년 -0.4p로 하락하여 수요 부진 상황으로 진입했다.

**(도매·소매업)** 고용과 투자,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이 상승하나 영업이익률과 1인당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공급능력 증대는 제한될 것이다.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3.1p에서 2014년 -1.8p로 하락하여 수요 부족 상황에 진입했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 고용과 투자, 영업이익률 등 공급측 요인이 하락한다.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2년 -10.2p에서 2014년 -1.4p로 수요 부진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 ③ 중간업종

**(문화·기타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 고용과 투자, 영업이익률, 임금상승률 등 공급측 요인이 하락했다.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2년 2.3p에서 2014년 -1.4p로 수요 부족 상황으로 진입했다.

**(운수 및 보관업)** 수요는 부진하나 공급이 양호한 상태이다. 고용이 증가하나 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공급 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3.0p에서 2014년 -1.0p로 하락하며 수요 부족 상황에 진입했다.

**(음식·숙박업)** 수요는 양호하나 공급 과잉 상태다. 고용과 투자,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하나 영업이익률(수익성)과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임금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어 공급 능력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수요는 균형에 근접하나 2011년~2013년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마이너스로 수요 부진 상황이다.

## ■ 시사점

첫째, '성장업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몰려드는 우수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미래형 보건·의료 인력양성 시스템(가칭)'을 설립 및 활용하여 성장세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취약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중간업종'은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방안, 지원규모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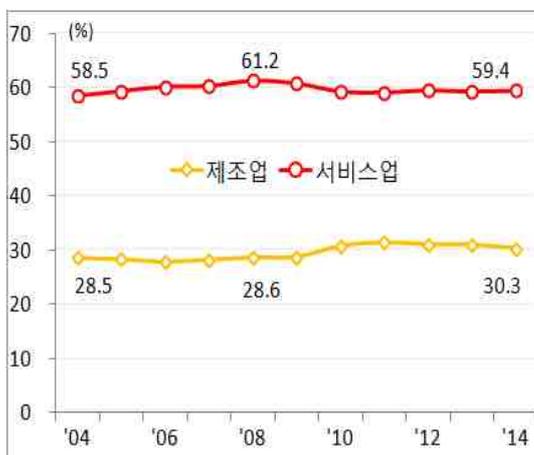
## 1. 국내 서비스업의 중요도

### ○ 국내 서비스업이 GDP 및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

- 국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근접함
  - 국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61.2%에서 2014년 59.4%로 60% 미만을 기록
  -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6%에서 2014년 30.3%로 상승함
- 국내 취업자 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0%에 근접한 수준임
  - 국내 취업자 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4.1%, 2008년 66.9%에서 2014년 69.2%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한편, 서비스업 노동생산지수는 2010년 100에서 2014년 98.6로 추세적 하락세임
- 하지만, 국내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60% 내외)은 G7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 70% 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이에 서비스업 개별 업종의 수요·공급 현황 점검을 통해 서비스업 발전 방안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이용하여 HRI 추정.  
주 :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임.

<서비스업과 제조업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재구성.  
주 :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취업자 수 대비 비중임.

## 2. 국내 서비스업 업종별 현황

○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내부 업종별로는 생산성 및 고용 비중 측면의 특징에서 차이가 큰 상황임

- 지식기반서비스업<sup>1)</sup>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보이나 고용 비중은 낮음
  -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sup>2)</sup>, 교육, 보건·사회복지, 문화·기타
- 소비자 및 유통 서비스가 낮은 생산성과 높은 고용 비중의 특성을 보인 반면, 생산자 서비스는 높은 생산성과 낮은 고용 비중
  - 소비자서비스는 음식·숙박업, 유통서비스는 도소매, 운수·보관업을 의미
  - 생산자서비스는 부동산·임대업을 말함

<국내 서비스업 업종별 현황>

구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고용 비중 (%)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서비스업 전체	58.5	59.4	64.1	69.2	37.1	42.5	
지식 기반 서비스	정보·통신	4.6	3.8	2.7	2.8	60.5	76.2
	사업서비스	5.8	7.4	5.7	8.6	40.4	41.2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3.0	4.2	2.6	6.6	51.3	32.5
	금융·보험	6.3	5.6	3.3	3.3	71.4	99.2
유통 서비스	교육	5.4	5.5	6.8	7.1	36.5	36.1
	문화·기타	2.6	2.8	6.5	6.6	16.7	19.8
생산자 서비스	도매·소매	8.4	8.6	16.9	14.8	21.2	31.2
	운수·보관업	4.4	3.7	5.0	5.5	30.6	34.6
생산자 소비자	부동산·임대	8.7	8.0	2.0	2.0	171.5	188.4
	음식·숙박	2.7	2.6	9.1	8.2	13.3	14.9

자료 : 한국은행(국민소득, 기업경영분석); 금융감독원,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1) 서비스업 전체에는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이 포함.

2) 1인당 부가가치는 실질GDP를 취업자수로 나눈 수치임.

1) 지식기반서비스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제조업 등 여타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긴밀한 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

2) 사업서비스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법률·회계·광고 건축기술, 디자인 전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청소·방제·고용지원·사무지원·여행보조 서비스)(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서 개편.)

### 3. 국내 서비스 업종별 수급 현황<sup>3)</sup>

○ 국내 서비스 업종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현황을 판단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함

- 공급 측면 : 공급 규모와 능력 변화와 함께 이에 대응되는 수익성과 생산성 지표를 함께 측정함
  - 물량 측면에서 공급 규모(매출, GDP)와 공급 능력(고용, 투자)을 측정하고
  - 가격 측면에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가격, 임금, 1인당 부가가치 항목을 표시
- 수요 측면 : 서비스 업종별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생산지수 실적치 - 생산지수의 추세치)<sup>4)</sup>의 증감을 서비스 업종별 '수요 양호' 혹은 '수요 부족' 상황으로 추정

<서비스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판단 지표>

구분		지표	분석 지표
공급 측면	성장성 (공급규모)	매출	매출액 증가율(실질)
		GDP	실질 GDP 성장률
	공급능력	고용	취업자수 증가율
		투자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수익성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가격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임금	평균임금 상승률(실질)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업종GDP/취업자수) 증가율	
수요 측면	수요 양호	순환변동치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 플러스(+)
	수요 부족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 마이너스(-)

자료 : 한국은행(국민소득, 기업경영분석); 금융감독원, 통계청, 고용노동부.

3) McCafferty, Ian(2014), "The UK Productivity Puzzle - A Sectoral Perspective", Speech, Market News, London, Bank of England, 19 Jun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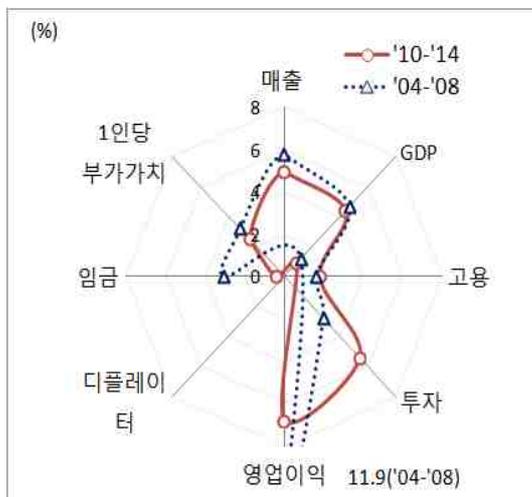
4) 서비스업 업종별 순환변동치는 HP(Hodrick Prescott)필터를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 ①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공급측에서 성장성, 수익성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수요는 최근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공급 측면 : 정보통신업의 고용 및 투자 등 공급능력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거나 성장성, 수익성과 생산성은 하락함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각각 5.8%와 4.7%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5.0%와 4.4%로 하락
  - 고용과 투자 : 반면, 취업자 증가율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1.6%와 2.8%에서 금융위기 이후 1.8%와 5.4%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 증대 가능성 있음
  - 수익성과 생산성 : 영업이익률(11.9%⇒6.8%)과 1인당 부가가치(3.2%⇒2.5%), 임금 상승률(3.1%⇒0.4%)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
  
- 수요 측면 :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균형 상태에 근접
  - 수요를 나타내는 정보통신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2년 0.9p에서 2014년 0.2p로 축소됨

<정보통신업 공급 지표>



<정보통신업 수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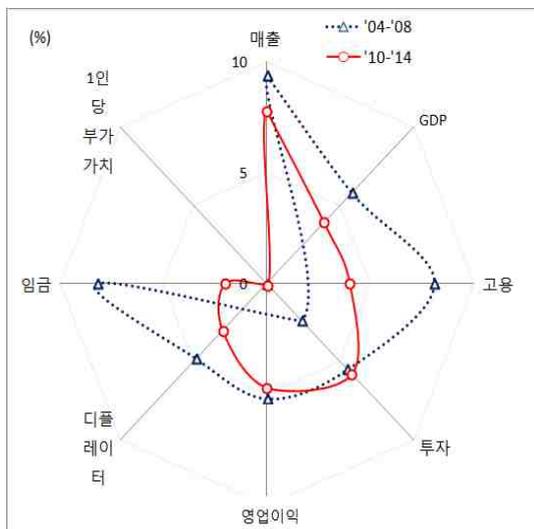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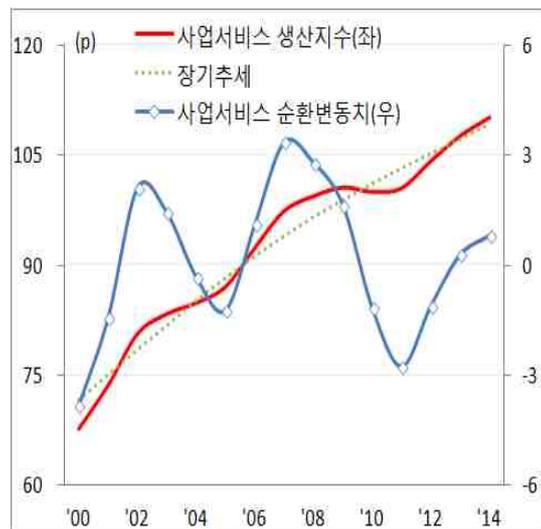
○ (사업서비스업) 성장성과 수익성 등 공급 측면 지표가 하락하는 반면, 수요 측면은 개선되는 양상임

- 공급 측면 : 사업서비스업의 고용 및 투자는 정체 상태이고 수익성과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음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각각 9.4%와 5.8%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7.8%와 3.9%로 하락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4.0%로 하락.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5.5%에서 금융위기 이후 5.8%로 상승
  - 생산성과 수익성, 임금 : 영업이익률(5.2%⇒4.7%)과 임금 상승률(8.2%⇒2.9%)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나 1인당 부가가치(-2.4%⇒0.1%)는 마이너스를 지속하나 개선됨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수요를 나타내는 사업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0년 -2.8p에서 2014년 0.8p로 상승하며 플러스로 전환

<사업서비스업 공급 지표>



<사업서비스업 수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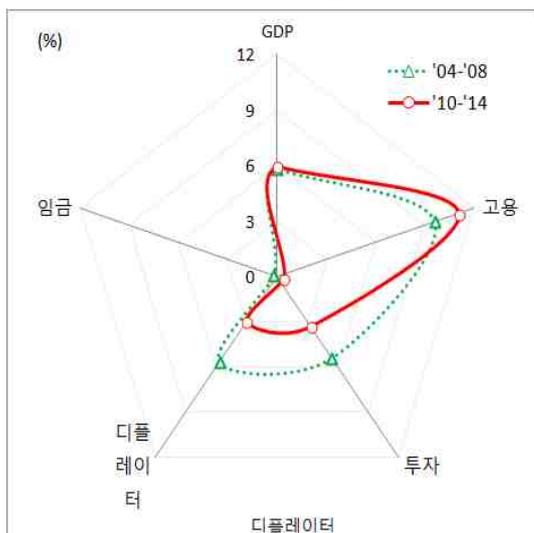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 (보건복지업) 공급 측면에서 성장성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나 수요 측면은 최근 상승하며 호조를 보임

- 공급 측면 : 보건복지업의 성장성은 정체 상태이고 생산성은 하락함
  - 성장성 :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5.86%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5.94%로 정체 상태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9.6%에서 금융위기 이후 11.1%로 증가. 반면,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5.4%에서 금융위기 이후 3.0%로 하락
  - 생산성과 임금 : 임금 상승률(0.2%⇒0.4%)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3.4%⇒4.7%)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며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는 다소 상승하며 개선됨
  - 수요를 나타내는 보건복지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1.5p에서 2013년 0.7p로 하락하나 2014년 1.2p로 재상승하며 플러스 지속

<보건복지업 공급 지표>



<보건복지업 수요 지표>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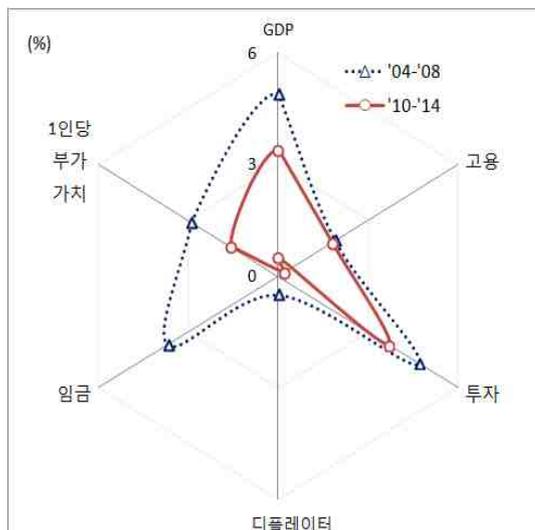
주 1) 보건복지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통계자료 입수 불가.

2) 1인당 부가가치 자료는 그림 설명의 명확성을 위해 본문에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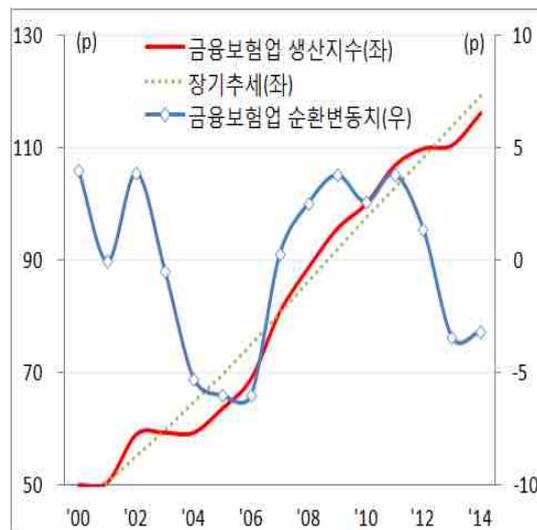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업) 성장성과 생산성 등 공급 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둔화 되는 가운데 수요도 부족 상황으로 진입

- 공급 측면 : 금융 및 보험업은 성장세, 고용과 투자 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이고 생산성과 임금도 하락함
  - 성장성 :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3.4%로 하락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후 정체 상태이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4.7%에서 금융위기 이후 3.7%로 하락
  - 생산성과 임금 : 1인당 부가가치(2.9%⇒1.6%)와 임금 상승률(3.7%⇒-0.2%)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가 2013년 이후 크게 줄어들며 부족 상황에 진입함
  - 수요를 나타내는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3년 이후 마이너스(-)로 수요 부족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금융 및 보험업 공급 지표>



<금융 및 보험업 수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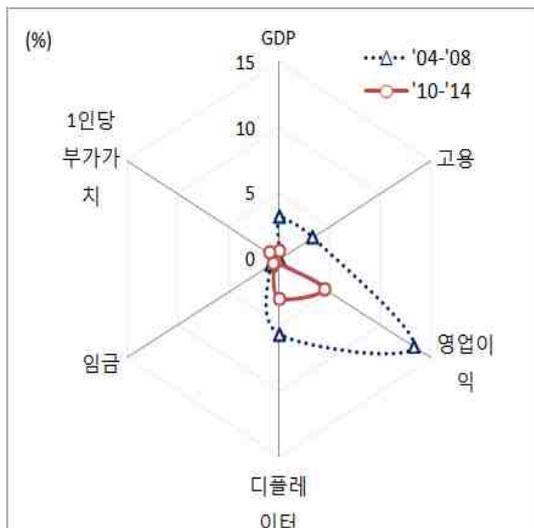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주 : 금융 및 보험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통계자료 입수 불가.

○ (교육서비스업) 성장성, 수익성과 생산성 등 공급 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고 수요도 부족 상황으로 진입

- 공급 측면 : 교육서비스업의 성장성, 고용 및 투자는 하락하고 수익성과 생산성도 하락함
  - 성장성 :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3.3%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0.7%로 하락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3.3%와 0.3%에서 금융위기 이후 각각 -0.3%와 -5.7%로 하락
  - 수익성과 생산성, 임금 : 영업이익률(13.3%⇒4.5%)과 임금 상승률(0.9%⇒0.6%)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는 반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0%⇒1.0%)은 개선됨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가 2013년 이후 부족 상황으로 진입
  - 수요를 나타내는 교육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1.0p에서 2014년 -0.4p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지속

<교육서비스업 공급 지표>



<교육서비스업 수요 지표>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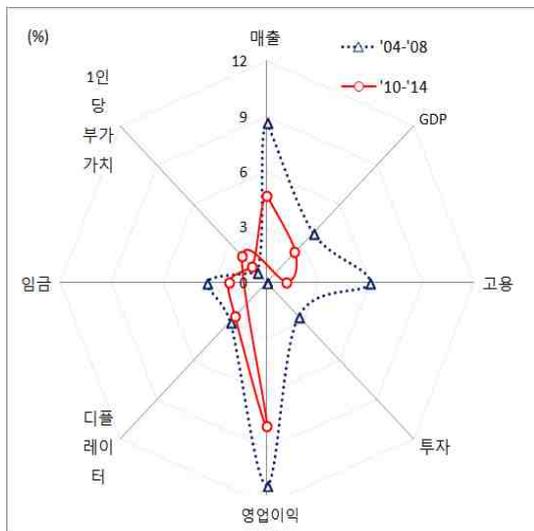
주 1)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액에 대한 통계자료 입수 불가.

2) 투자 자료는 그림 설명의 명확성을 위해 본문에서 설명.

○ (문화·기타서비스업) 공급측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고용과 투자 지표가 하락하고 수요도 부족으로 진입한 상황임

- 공급 측면 : 문화·기타서비스업의 성장성, 고용 및 투자 부문이 하락하고 수익성과 임금도 하락하나 생산성은 상승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각각 8.7%와 3.8%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4.7%와 2.3%로 하락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6.0%에서 금융위기 이후 1.1%로 하락.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2.6%에서 -2.0%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수익성과 생산성, 임금 : 영업이익률(11.0%⇒7.8%)과 임금 상승률(3.5%⇒2.2%)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0.8%⇒1.2%)은 상승함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가 2012년 이후 하락하며 부족 상황으로 진입
  - 수요를 나타내는 문화·기타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2년 2.3p에서 2014년 -1.4p로 하락하며 수요 부족 상황으로 진입

<문화·기타서비스업 공급 지표>



<문화·기타서비스업 수요 지표>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 ② 유통서비스

○ (도매·소매업) 성장성, 수익성과 생산성 등 공급 부문이 상승했으나 수요 부문은 부족 상황으로 진입함

- 공급 측면 : 성장성, 고용과 투자 등 부문이 상승하고 수익성과 생산성도 상승함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8.3%⇒8.6%)과 실질 GDP 성장률(2.9%⇒4.9%)이 금융위기 이후 각각 0.3%와 2.0%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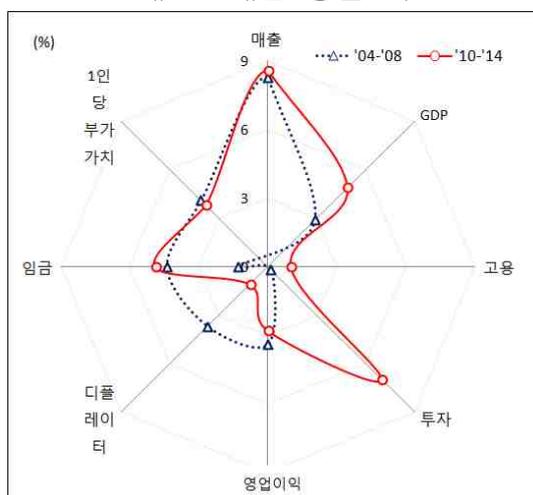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1.3%⇒1.0%)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0.2%⇒7.0%)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함

· 수익성과 생산성, 임금 : 영업이익률(3.4%⇒2.8%)과 1인당 부가가치(4.1%⇒3.8%)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반면, 임금 상승률(4.4%⇒4.9%)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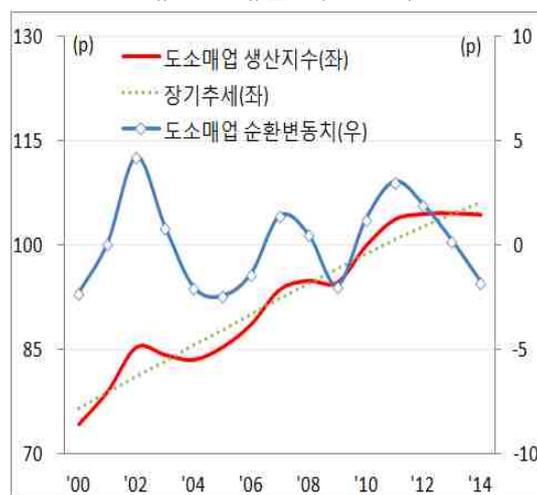
- 수요 측면 : 수요가 2011년 이후 하락하며 수요 부족 상황에 진입함

· 수요를 나타내는 도소매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3.1p에서 2014년 -1.8p로 하락하며 수요 부족 상황으로 진입

<도매·소매업 공급 지표>



<도매·소매업 수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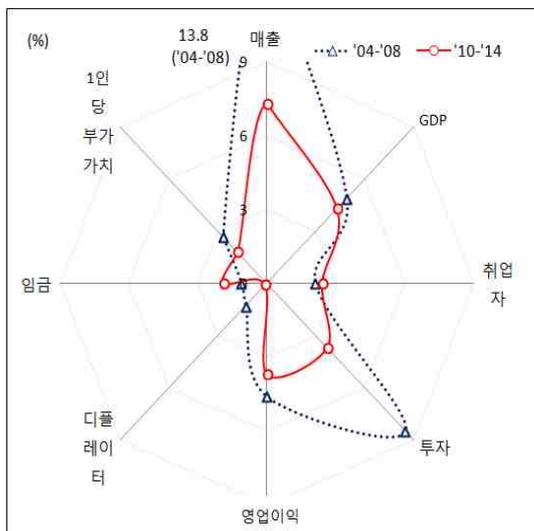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5)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수치임.

○ (운수 및 보관업) 성장성, 투자, 수익성과 생산성 등 공급 부문이 하락하고 수요 측면도 부진 상황으로 진입함

- 공급 측면 : 성장성, 투자, 수익성과 생산성 부문이 하락하나 고용과 임금 부문은 상승함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각각 13.8%와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7.3%와 4.3%로 하락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2.1%에서 금융위기 이후 2.4%로 상승. 반면,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8.5%에서 금융위기 이후 3.7%로 4.8%p 하락함
  - 수익성과 생산성, 임금 : 영업이익률(4.6%⇒3.7%)과 1인당 부가가치(2.7%⇒1.8%)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나 임금 상승률(1.1%⇒1.9%)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함
  
- 수요 측면 :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부족상황에 진입함
  - 수요를 나타내는 운수 및 보관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3.0p에서 2014년 -1.0p로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됨

<운수 및 보관업 공급 지표>



<운수 및 보관업 수요 지표>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 ③ 생산자서비스

○ (부동산·임대업) 성장성, 수익성과 생산성 등 공급 부문이 하락하고 수요는 개선세이나 부족 상황이 지속됨

- 공급 측면 : 성장성, 투자, 수익성과 생산성 부문이 하락하나 고용과 임금 부문은 상승함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각각 9.9%와 3.1%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9.2%와 1.5%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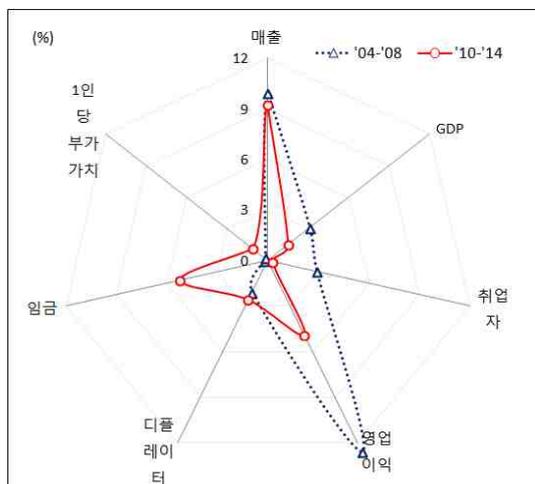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2.9%에서 금융위기 이후 0.3%로 하락한 반면,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2004~2008년 평균 -1.4%에서 2010~2014년 -1.1%로 소폭 개선되나 마이너스 지속

· 수익성과 생산성, 임금 : 영업이익률(12.6%⇒4.9%)이 금융위기 이후 하락. 반면, 1인당 부가가치(0.2%⇒1.1%)와 임금 상승률(0.2%⇒5.2%)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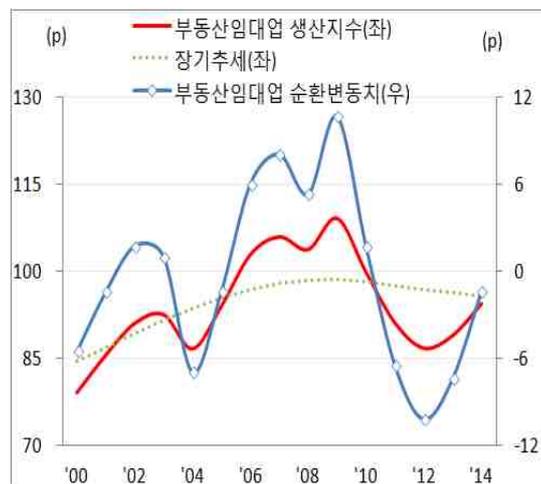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가 2011년 이후 개선되나 여전히 부족상황에 머물

· 수요를 나타내는 부동산 및 임대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2년 -10.2p에서 2014년 -1.4p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

<부동산 및 임대업 공급 지표>



<부동산 및 임대업 수요 지표>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 ④ 소비자서비스

○ (음식·숙박업) 고용 및 투자 등 공급 능력 부문이 증가하고 수요가 개선되며 균형 상황에 근접함

- 공급 측면 : 음식·숙박업의 고용 및 투자는 증가하나 수익성과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음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10.2%에서 12.8%로 상승한 반면, 실질 GDP 성장률은 1.5%에서 1.3%로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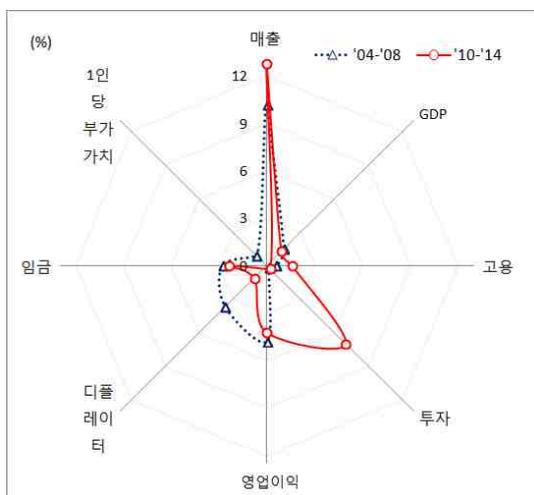
· 고용과 투자 : 취업자 증가율(0.6%⇒1.6%)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0.2%⇒7.0%)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함<sup>6)</sup>

· 수익성과 생산성, 임금 : 영업이익률(4.8%⇒4.2%)과 임금 상승률(2.8%⇒2.4%)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고 1인당 부가가치(0.9%⇒-0.3%)도 하락하며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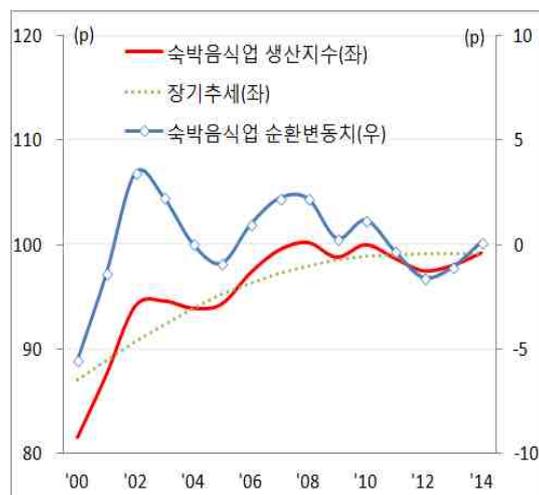
- 수요 측면 : 최근 수요가 2011년 이후 개선되며 균형 상황에 근접함

· 수요를 나타내는 음식·숙박업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011년 -0.3p에서 2014년 0.1p로 상승하며 플러스로 전환

<음식·숙박업 공급 지표>



<음식·숙박업 수요 지표>



자료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자체 추정.

6)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수치임.

### ⑤ 종합평가

○ 공급과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지식기반서비스,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소비자서비스는 성장, 취약, 그리고 중간업종으로 구분됨

- 성장 업종을 공급 양호와 수요 양호를 충족하는 업종이고 취약 업종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해당하는 업종을 의미
  - 성장업종 :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이 해당됨
  - 취약업종 :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이 해당됨
- 중간업종은 공급 혹은 수요 측면 중 한 부문에서만 양호한 업종임
  - 중간업종 : ‘문화·기타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업’, ‘음식·숙박업’이 해당됨

<서비스업 업종별 수요공급에 따른 분류>



- 주 1) 공급 측면 지표 8개(매출액, GDP, 고용, 투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GDP 디플레이터, 임금상승률, 1인당 부가가치)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수준 및 변동성 지표의 기준값을 추산함.
- 2) 수요지표는 업종별 생산지수의 순환변동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준값을 추산함.
- 3) 서비스 업종별 수요 및 공급 측면 지표의 자세한 결과는 “【첨부】 서비스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판단 결과” 참조.
- 4) 업종별 지표 산정시 이용 불가한 자료. 도매 및 소매업은 ‘투자’, 음식 및 숙박업은 ‘투자와 디플레이터’, 보건복지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임.

#### 4. 시사점

○ 성장업종과 취약업종, 중간업종에 해당되는 산업이 모두 정부의 유망 서비스업에 속해있어 업종별 정부의 지원방향을 차별화할 필요있음

-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성장업종)과 교육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취약업종)이 모두 정부의 유망서비스업 해당됨
- 중간업종에서는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과 운수 및 보관업도 유망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산업임

첫째, '성장업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몰려드는 우수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미래형 보건·의료 인력양성 시스템(가칭)'을 설립 및 활용하여 성장세 확대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망업종인 사업서비스와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된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확대가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취약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서비스산업 규제 특례 지역' 선정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금융 및 보험 등 업종에 대한 생산성 향상 유도 필요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 해외캠퍼스 설치 운영 지원책 확대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필요있음
- 한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중·장년층에 대하여 일자리 나누기(jobs-sharing), 재취업을 위한 중개(job-matching) 시스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필요

셋째, '중간업종'은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지원규모 확대 등 보완 대책 필요

-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 집적단지 조성(15.2월 발표)'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수요 및 관광관련 수요 창출 유도 필요
  - 정부가 기존에 계획한 사업 투자규모(1.4조원)가 추진됨으로써 예상되는 '핵심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인프라 확충, 갈등과제 검토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음식·숙박업의 경우에 '생활숙박시설(Serviced Residen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갈등과제이지만 국내 서비스업산업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HRI**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첨부】 서비스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판단 결과

	공급측면			수요측면		
	수준 (A)	변동성 (B)	합계 (A+B)	수준 (C)	변동성 (D)	합계 (C+D)
정보통신업	5.1	-0.5	4.5	0.0	0.2	0.2
금융 및 보험업	-0.3	-1.9	-2.3	-2.9	-0.9	-3.8
사업서비스	5.8	-1.7	4.1	0.5	0.6	1.1
보건복지업	13.3	-3.0	10.3	0.9	3.0	3.8
교육서비스업	-9.5	-1.1	-10.6	-0.5	-0.7	-1.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8	0.9	0.1	-1.4	-0.9	-2.3
음식점 및 숙박업	-3.4	-1.3	-4.7	-0.1	0.1	0.0
도매 및 소매업	0.7	-1.5	-0.8	-1.7	-1.0	-2.7
운수 및 보관업	1.7	1.3	3.1	-1.1	-0.7	-1.8
부동산 및 임대업	-3.8	2.2	-1.6	-1.4	-0.3	-1.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주 1) 공급측면 수준은 [(각 서비스업종 2010~2014년 평균)- (전체 서비스업 2004~2014년 평균)]/(전체 서비스업 2004~2014년 표준편차).
- 2) 공급측면 변동성은 [(각 서비스업종 2010~2014년 평균)- (각 서비스업종 2004~2008년 평균)]/(각 서비스업종 2004~2014년 표준편차).
- 3) 수요측면 수준은 [(각 서비스업종 2014년 순환변동치)- (전체 서비스업 2010~2014년 평균)]/(전체 서비스업종 2011~2014년 표준편차).
- 4) 공급측면 변동성은 [(각 서비스업종 2014년 순환변동치)- (각 서비스업종 2010~2014년 순환변동치 평균)]/(각 서비스업종 2010~2014년 표준편차).